

가계빚 1300조 돌파... 141조 증가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 전 분기 대비 3.7%·1년 만에 11.7%↑... 2금융권 가계대출 크게 ↑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1년새 141조원 넘게 늘어 1300조원을 돌파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했다.

2015년 말(120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41조2000억원(11.7%)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141조2000억원)은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증가율도 2006년 4분기(11.8%)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3년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108조5000억원, 2015년 120조3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분기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의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수치다.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가계신용-판매신용) 규모는 127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2조9000억원(3.5%) 늘었다.



해외서 쓴 카드비용만 16조6000억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했다. 21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해외여행객들이 해외서 구입한 물건들을 갖고 귀국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17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 늘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3.1%)와 3분기(2.9%), 4분기(2.2%)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9%나 늘었다.

보험사, 연금금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도 362조9000억원으로 4.8%나 증가했다.

주택담보는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는 684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2조5000억원(3.3%)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3.2%)와 3분기(3.2%)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상승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는 442조6000억원으로 2.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18조7000억원으로 7.3%, 주택금융공사는 122조9000억원으로 5.3%나 늘었다.

카드사용액 등 판매신용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 판매신용은 7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회사는 3조5000억원, 할부금융회사는 1조2000억원, 판매회사(백화점·자동차회사)는 2000억원 늘었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쪽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며 "비은행 쪽은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원(2.1%) 증가에 그쳤다.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3.2%)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는 118조7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7.1%) 늘었다. 지난해 3분기(3.5%)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도 122조9000억원으로 42조9000억원(5.3%) 늘어났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141조2000억원(11.7%)으로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빚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정부가 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금융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주택담보는 44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다문화 가정에 고국 항공권 전달

LG전자 노동조합, 26가구 96명 'USR 고향방문단' 선정

LG전자 노동조합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에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배상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LG전자 노조대표는 21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LG전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다문화 가정에 고국 방문 위한 왕복항공권을 전달했다.

LG전자 노동조합은 지역 복지재단 및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26가구 총 96명을 'USR 고향방문단'으로 선정했다. 모든 가구에는 LG전자 전자레인지 선물로 제공했다.

노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매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중인 협력사 임직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2명의 학생들이 각각 장학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독거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신입생이 되는 손자와 손녀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13년 7월부터 기금을 모아 매년 1억여 원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애플, 아이폰8에 안면인식 기능 추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에 얼굴인식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여 기존에 나와 있던 홍채인식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9월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8에 안면인식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애플은 이전부터 안면인식 관련 기업 인수 및 투자를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전날 애플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리얼페이스'를 전격 인수했다. 2014년 설립된 리얼페이스는 머신러닝 기반의 안면인식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에 전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능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고, 최근 나온 IP모건의 보고서에선 3D레이저 스캐너를 장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로드 홀 IP모건 애널리스트는 "아이폰8용 부품 공급망을 조사한 결과 화면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감싸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며 "3D레이저 스캐너는 안면인식,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3년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동작감지 팡리업체 프라임센스를 약 3억6000만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프라임센스는 D스캐닝 애플리케이션용 센서 등을 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작감지센서 키넥트 기술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애플의 지문인식 기능은 5만번의 1분짜리 오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훨씬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안면인식 기능이 더해지면 은행과 가맹점간의 애플페이 채택을 높일 수 있다. /뉴시스

은행대출 조이니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신용 3.7% 증가... 예금은행 둔화·비은행 4.9% 증가

정부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했다.

이 중 예금은행 대출은 617조4000억원으로 13조5000억원(2.1%) 늘었다. 지난해 2분기(3.1%)와 3분기(2.1%)에 비해 둔화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91조3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3조5000억원(4.9%)나 증가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1분기 3.1%, 2분기 4.1%, 3분기 4.2%, 4분기 4.9%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상호저축은행(1조1000억원), 신용협동조합(1조9000억원), 상호금융(5조6000억원), 새마을금고(4조7000억원), 신탁·우체국예금(1000억원) 등의 대출이 모두 증가했다.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을 포함하는 기타금융기관 대출도 362조9000억

원으로 전기 대비 15조9000억원(4.8%)이나 늘었다. 지난해 3분기(2.3%)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체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50.5%에서 지난해 말 51.4%까지 확대됐다.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주택담보는 44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원(2.1%) 증가에 그쳤다.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3.2%)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는 118조7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7.1%) 늘었다. 지난해 3분기(3.5%)에 비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도 122조9000억원으로 42조9000억원(5.3%) 늘어났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141조2000억원(11.7%)으로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빚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정부가 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금융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주택담보는 44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삼성 갤럭시S8, S7보다 100달러 오를 듯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S8이 전작인 S7보다 100달러(약 11만4000원) 가량 오른 가격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의 테크 뉴스 블로그는 20일(현지시간) 삼모바일(SamMobile)이 밝힌 우크라이나 소매업체에서 유통된 제품 가격정보를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매체에 따르면 갤럭시S8(SM-G950)과 갤럭시S8플러스(SM-G955) 64GB 모델의 우크라이나 권장소매가

격은 각각 2만5999 흐리브냐(111만 원), 2만8999 흐리브냐(123만 원)다.

이는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7보다 11만4000원가량 비싸다. 갤럭시S7의 국내 출고가는 83만6000원(32GB), 88만 원(64GB), 갤럭시S7 엣지의 국내 출고가는 92만4000원(32GB), 96만8000원(64GB)이었다.

유통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S8 시리즈의 색상은 블랙, 골드, 오키드 그 레이 3종류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